

## 장애인 야학의 전개와 운영상의 쟁점에 관한 문화기술적 사례 연구: 두 야학을 중심으로

김 용 욱\*

논산 동산초등학교

하 상 근

천안인애학교 교장

---

---

### 《 요 약 》

---

---

본 연구는 장애인 야학의 전개와 운영상의 쟁점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이것이 특수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야학은 민중교육을 담당하며 110년 이상 이 땅에 존재해 왔다. 노들장애인이야학과 질라라비장애인이야학은 장애인 운동이 당사자주의로 전환하게 되던 시기에 장애인 운동 활동가들의 진보적인 운동의 축적과정에서 1993년과 2000년에 각각 설립되었다. 배움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으로 학업을 이어가던 중, 두 야학은 2001년 오이도역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 운동을 전개하며 한국장애인 운동의 구심점으로 활동해 왔다. 이들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된 문화체험을 통해 지역사회와 법제도의 변화 등을 이끌어내며 새로운 삶을 꿈꾸는 공동체로 거듭나고자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30여 개의 장애인 야학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은 장애인 야학의 운영난 문제 해결 및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장애인이야학협의회를 결성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평생교육 시설로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사회와 제도권 교육에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해 온 장애인 야학은 특수교육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첫째,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특수교육의 제도적인 취약함을 드러낸다. 둘째, 학령기를 지난 장애성인을 위한 특수교육적인 노력이나 실천이 그동안 부족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셋째, 학생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관계를 맺고 교육이 가능하다는 희망과 함께 탈학교적인 상상력을 자극해준다.

오늘날 우리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매우 부각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권 교육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고 성인으로 자란 장애인들이 가지는 배움과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새로운 교육을 기획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장애인 야학의 일련의 교육활동과 노력은 그동안 학령기 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학교교육을 실시해 온 기존의 특수교육체제에 대해 그 외연과 전문성을 확장시킬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

주제어 : 장애인 야학, 노들장애인이야학, 질라라비장애인이야학, 특수교육

---

\* 교신저자(k960905@hanmail.net)

## I. 서 론

### 1. 문제 제기

한 국가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그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범위를 정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국민들을 교육하는 것을 흔히 제도권 교육이라 부른다. 이와 달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교육철학과 자율적인 교육실천을 하면서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은 거의 받지 않는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비제도권 교육이라 일컫는다. 이러한 비제도권 교육 중 대표적인 형태로는 대안학교와 야학이 있다. 대안학교는 획일적인 공교육제도에서 탈피하여 교육목적과 학생수준 등에 따라 자유롭게 다양하게 교육과정, 학습방법 등을 운영해 오고 있다(김경식 외, 2003). 야학의 경우는 장애인을 비롯한 도시빈민, 저임금 노동자, 농민과 같은 기본적인 제도권 교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다(양병찬 외, 2004; 천성호, 2009).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야학은 제도권 교육으로부터 소외당하거나 경제적 기반이 약한 노동자들과 진보적 대학생이나 지식인이 자발적으로 꾸려가는 작은 교육 공동체였다. 야학에 다니던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이자 약자였으며, 학습을 통해 자기실현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사회변혁의 주체로 서기를 원했다. 진보적 활동가들은 계급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실천을 통해 사회변혁의 작은 축이 될 수 있기를 꿈꾸었다(김은경, 1988). 이러한 야학의 교육적 성격은 Freire가 주장한 교육철학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 Freire(1997)에 의하면 교육은 교육수혜자가 교육을 통해 삶의 주체자로 사는 법을 익힐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하며, 교사와 학생들은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나’를 발견할 수 있고 자신들을 소외시킨 ‘사회’의 실재(reality)에 눈을 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야학 중에서도 장애인 야학은 제도권 교육으로부터 가장 극명하게 소외되어 온 성인 장애인을 위한 민간 교육기관으로서(황병건, 2006) 공교육이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 간극을 메우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매우 낮은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정치적 힘을 발휘하기에도 역부족이었다. 한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대우를 받지 못하고 교육권을 박탈당한 장애인들이 가졌던 꿈은 배움에 대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었다(Oliver, 1996). 하지만 점차 이들도 학습을 통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게 되고, ‘장애인 야학’도 소수자이지만 동등한 인간으로서 함께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많은 장애인들과 진보적인 활동가들이 결합한 곳으로 변모되어 갔다(장애인지역공동체, 2002). 진보적인 활동가들은 ‘장애인 야학’이 그저 단순히 학교라는 역할에 머물기를 바라지 않았다. 이들에게 ‘야학’은

지식을 나누는 곳을 넘어 소수자와 약자를 억압하고 따돌리는 세상과 맞서는 법을 배워야 하는 곳으로 여겼다. 따라서 장애인 야학은 그저 학교라기보다는 장애인들을 향한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억압을 의식하는데 목적을 두고, 서로 삶을 나누며 함께 문제를 공유해 나가는 일종의 사회적인 교육공동체라고 보아야 한다(김용욱·김병하, 2007).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부족했으며,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은 장애인의 삶을 단지 불편하게 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으로는 가난을, 신체적으로는 고통을, 일상적인 삶에는 큰 슬픔을 가져다주었다(김도현, 2007). 이들은 야학을 통해 배움의 욕구를 일부분 충족하지만 곧 배움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삶을 억압하고 있는 세상과의 소통 방식으로서 삶이 곧 운동이 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다(질라라비장애인야학, 2002, 2004). 다시 말해, 장애인들은 장애인 야학을 통해 새로운 삶의 희망을 꿈꾸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야학’은 지식습득이나 기술을 배우는 학교라는 역할을 넘어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생적 교육운동 또는 사회운동으로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은 특성은 장애인 야학의 설립 과정과 활동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노들장애인야학, 2008; 질라라비장애인야학, 2002, 2004). 뿐만 아니라, 이들의 교육이념과 학교조직운영은 장애인들을 둘러싼 현실적 상황과 전망 속에서 시작된 것이어서 지역의 장애인운동으로 발전하고 변화해 가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 야학은 특수교육계 내에서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장애인 야학을 포함한 일반 야학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세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첫째, 역사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김형목, 2001; 조정봉, 2002, 2005, 2006, 2007) 야학이 가장 활성화 되었던 일제시대를 중심으로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야학의 실태를 밝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야학의 변천사를 알리고, 사회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족구국운동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야학의 교육적 의미를 드러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다(오태석, 2002; 황병건, 2006; 김미아, 2008). 이와 같은 연구는 교육학의 관심 밖에 있었던 야학의 교육 현상을 지역사회운동의 한 부분으로 규정하고 사회복지실천방법과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으로서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셋째, 교육적 접근이다(이광영, 2004; 성영미, 2005; 김형목, 2006; 김용욱·김병하, 2007). 이러한 연구들은 기존에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야학의 구체적인 교육활동을 통하여 교육에의 시사점을 밝혔다는 데에 의의를 지닌다.

위의 연구 중 장애인 야학에 대한 연구는 황병건(2006)과 김미아(2008)에 의해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이루어졌고, 김용욱·김병하(2007)에 의해 특수교육학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시도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이 설문지와 사례 조사 등을 통하여 객

관적인 실태와 교육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장애인 야학의 현상을 학문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하겠지만, 그러한 실태가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야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정규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게 된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부모님의 인식 부족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입학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한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부모님의 어떠한 인식이 입학 거부와 직접 관련이 있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 장애인 야학의 성립과 발전, 문화 형성에 관하여 실제적인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장애인 야학이 시사하는 바를 특수교육적 의미에서 풀어보고자 한다.

한 사회의 복지와 인권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정책적 배려에서 확인된다. 특수교육의 출발도 다르지 않다. 이는 제도권 교육의 건강성을 가늠하는데 특수교육의 역할과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가 된다. 즉, 가장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서 힘겹게 대안을 모색해 가며 교육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배려와 비전이 어떠냐에 따라 특수교육의 지표도 그만큼 달라진다(김병하, 2002).

이런 의미에서 장애인 야학이 지닌 역사성과 사회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은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 까닭은 그동안 특수교육이 지나치게 치료-교정 모형에 천착하여 기능주의의 한 쪽 모퉁이에 위치해 왔다는 비판(김병하, 2003)과 장애인의 평생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육기회에서 소외된 성인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사회 전반으로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특수교육의 사회적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보거나 제도권 특수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2. 연구 목적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장애인 야학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운영상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이것이 특수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를 통해 중점적으로 구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장애인 야학의 전개에 대하여 밝힌다.
- 둘째, 장애인 야학 운영상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밝힌다.
- 셋째, 장애인 야학이 특수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 3. 연구 방법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기술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고, 연구 참여 야학으로 서울의 노들장애인야학과 대구의 질라라비장애인야학을 선정하여 2007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포괄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두 야학의 선정에는 다음의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 두 야학은 여타의 야학에 비하여 비교적 초창기에 설립된 야학으로서 한국 장애인 운동의 구심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간의 왕성한 활동과 현재의 안정적인 구조는 장애인야학의 발전상을 가장 잘 드러내 줄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둘째, 두 야학은 연구자가 친숙하게 접근하여 풍부한 정보를 얻어 낼 수 있는 최적의 야학이다. 연구자는 2002년부터 대구의 질라라비장애인야학을 후원하였고, 2007년부터는 서울 노들장애인야학이 주축이 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행사에 참여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야학의 전반적인 운영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이것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질적 사례 연구에서 큰 이점이 된다.

연구 참여자는 모두 18명으로 구성과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구성과 특성

분류	성명*	장애 유무	특성	비고
핵심 정보 제공자	박태석	지체1급	노들장애인야학 교장, 전장연 공동대표	
	박정원	지체1급	대구 장애인지역공동체 대표, 전장연 공동대표	
퇴임 교사	이영현	비장애	질라라비 퇴임교사, 병원근무	설립멤버
	허승혁	비장애	질라라비 퇴임교사, 개인사업	
	정지원	비장애	질라라비 퇴임교사	설립멤버
	성영모	비장애	노들 퇴임교사, 직장인	설립멤버
교사 대표	문석준	비장애	노들 교사, 사무국 상근	
	김정호	비장애	질라라비 교사, 취업준비 중	
일반 교사	김민재	뇌병변 3급	질라라비 교사, 사무국 상근	
	박선웅	비장애	질라라비 교사, 사무국 상근, 특수교육과 졸업	
	김형진	지체1급	질라라비 교사, 사무국 상근	
	김사빈	비장애	질라라비 교사, 시민운동 활동가	
	이하정	비장애	노들 교사, 사무국 상근, 사범대졸업	
	김주연	비장애	노들 교사, 사무국 상근, 특수교육과 졸업	
	최연경	비장애	노들 교사, 사무국 상근, 특수교육과 졸업	
	주경진	비장애	노들 교사,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간사	
	최세진	지체3급	노들 교사, 대학 재학	노들 졸업생
	최성용	비장애	노들 교사, 현직 교사	

\* 표의 성명은 모두 가명임

위 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핵심정보제공자로 각 장애인 야학의 교장 두 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설립, 혹은 초창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야학과 함께 해온 인물로서 해당 야학의 역사를 소상히 알고 있다. 둘째, 퇴임 교사 네 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설립 당시 야학에서 활동하던 사람들로서 장애인 야학 설립 전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다. 따라서 이미 소실되었거나, 문건으로 남아있지 않은 야학의 전반적인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교사는 각 장애인 야학의 교사대표 두 명과 일반교사 다섯 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야학의 사무국에서 상근하고 있으므로 야학 운영상의 쟁점에 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주된 연구 방법으로는 면담과 비디오 녹화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문헌분석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면담은 주로 노들장애인야학 내 사무실과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실 안에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소리의 강약, 문장의 이어짐 등이 매끄럽지 못한 관계로 녹화를 해서 문서화 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연결하여 정리하였다. 그 결과 8mm 비디오테이프 15개, 30시간 분량의 면담자료를 녹화 테이프로 저장할 수 있었고, A4 용지 65매 분량의 면담일지를 완성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유목화 하여 내용 전개에 적절히 활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주된 연구 방법과는 별도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사진, 각종 문서화된 장부, 파일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 II. 장애인 야학의 전개

본 장에서는 야학의 역사 가운데 장애인야학의 역사적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 야학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개관을 한 후, 두 야학을 중심으로 성립 및 전개 과정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장애인 야학의 성립 배경

#### 1) 일반 야학의 전개와 장애인 야학의 태동

최초의 야학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1906년 함경남도 함흥군 신중면에 설립된 보성야학이다. 그 뒤 마산 노동야학, 경성부 관영야학, 중동야학 등이 등장하면서 야

학은 2년여 만에 전국적으로 5천여 개로 빠르게 확산되었다(양병찬 외, 2004). 이런 점에서 야학은 일제강점기 이전에 시작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해서 현재까지 1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가난한 민중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야학은 일반 대중을 위한 대중교육기관, 학력 인정이 되지 않는 비제도권 교육기관, 민중의 정치 의식화를 위한 민중교육기관, 제도 교육에 대한적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야학은 정규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야간에 수업을 실시하는 비정규 사회교육 기관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구한말의 교육기관 중 하나였던 서당이 주학(晝學)인데 비하여 사설학술강습회는 대체로 야간에 강습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야학(夜學)이라 일컬어졌다고 한다(이광영, 2004). 시대별 야학의 특징과 전개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제 강점기의 야학은 민족의식이 강한 계몽가들에 의해 설립되어 애국계몽운동의 성격으로 전개되었다(임노문, 1992). 이때의 야학 운동은 식민지교육정책에 따라 교육시설의 부족과 민중생활의 빈곤으로 정규학교의 취학이 어려운 시기에 초등교육기관으로서의 구실을 수행하여 큰 교육적 성과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국권회복을 위한 민중계몽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해방 이후의 야학은 민족적 성격에서 벗어나 정규 제도교육에서 기회를 얻지 못한 소외 계층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문맹퇴치, 민족 재건, 노동운동에 이바지하며 성장하였다. 1950년대 이후에는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배움에 대한 열망으로 검정고시 야학(검시아학), 재건학교, 공민학교(초등과정), 고등공민학교(중학교 과정), 고등기술학교(고등학교 과정) 등이 등장하면서 극빈층의 청소년을 학습케 하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해 나갔다. 1960년대에는 재건 과정에서 천막 야학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야학을 한자로 ‘야학(野學)’ 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천성호, 2009). 1970년대 들어서면서 야학은 학생들의 삶의 문제에 다가서며 변화를 맞게 된다. 당시의 야학은 ‘생활야학’ (생야)과 ‘노동야학’ (노야)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때 야학을 찾는 사람들은 중졸 이하의 하위층 노동자, 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1980년대로 넘어오면서 야학은 대학생들의 현실 참여의 장으로 여겨지면서 학생운동의 중요한 현장으로 자리 잡게 된다. 야학을 중심으로 정치운동이나 현장운동이 이루어지면서 야학탄압이 극도로 심해지고, 광주 민주화운동 등에 야학이 연루되어 있다는 판단 하에 야학의 학생모집행위는 불법이 되었다(천성호, 2009).

90년대 이후에는 민주화가 진행되고 사회운동이 분화되던 시기로 야학도 다양한 형태로 분화,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야학을 교육과정의 운영에 따라 ‘생활야학’ 과 ‘검시아학’ 으로 구분하였고, 90년대 중반 이후 생활야학은 교육목표를 ‘공동체성 획득’ 에 두기도 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교육대상자들이 노인, 주부, 장애인, 이주노동자들로 바뀌면서 신생 야학들이 등장하게 된다. 현재 야학은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소외계층과 청소년, 노동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야간에

수업을 실시하는 학력 비인정 비정규 학교로 변모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다원화된 지향점을 추구하면서 지역사회 평생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김동영, <http://cafe.daum.net/jinjuyahak>).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과 어려움 속에서 1982년 인천에서 ‘작은자야학(미문야학)’이 설립되었고,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야학이다. 장애인 야학의 설립은 2000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약 30개의 야학이 활동 중에 있다. 이들 야학은 학령기에 교육의 기회를 놓친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야학은 서울의 노들과 대구의 질라라비를 모델로 하여 2007년 출범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약칭 전장연)에 가입하여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장애인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대부분의 야학이 그렇듯 주 연구대상인 두 야학의 역사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다. 다음의 내용은 문건과 보도자료, 설립주체의 구술을 토대로 각 야학의 설립상황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 2) 노들장애인야학

장애인당사자주의가 한국에서 소개된 것은 1991년 지체장애인협회 ‘새보람지’를 통해서였다(서인환, 2003). 시혜에서 인권으로, 다시 인권에서 사회·정치적 운동으로서 당사자주의로 변화하는 그 시점에 노들장애인야학이 위치해 있다.

노들장애인야학의 뿌리는 수도권 청년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 장애인 운동이 태동하기 시작한 198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당시 장애인계가 가장 절박하게 요구했던 것은 장애인의 취업과 고용 문제의 개선을 통한 생존권 보장의 문제였다. 서울올림픽과 제8회 장애자올림픽이 열리는 1988년이 되면서, 위의 두 법안과 관련된 이른바 ‘양대 법안 제정 운동’은 ‘장애자올림픽 거부 운동’과 맞물려 본격화 되었다(<http://www.cowalknews.co.kr/news/>). 이러한 ‘양대 법안 제정 운동’을 거치면서 활동가들은 장애인 운동을 사회 변혁 운동의 한 영역으로 설정하며 전국적인 청년 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서울 지역의 청년 활동가는 1991년 4월 13일, 장애인 운동청년연합회(약칭 장청)를 정식 출범시키게 되고 진보적 장애인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한다.

이후, 장청은 독자적인 조직으로서의 대중적·물적 토대에 한계를 느끼게 되고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약칭 전장협)와의 통합을 논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활동가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대중을 모으고 교육할 하부조직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때마침 정립회관 시설비리 투쟁이 일어난다. 이것은 수도권 중심으로 장애인 운동을 펼쳐나가던 청년활동가들이 결집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들이 장애인 야학을 만들게 된 동기를 박태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정립회관 시설비리 투쟁을 할 때 장청이 주도했어요. 그때 정립전자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을 만났지요. 시설비리 투쟁 과정에서 그들의 요구를 조사했어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장애인들이 굉장히 배우고 싶다는 것을 발견했고. 거기에서 교육하고 조직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 야학을 해서 이들의 교육적인 요구를 채워주기도 하고, 장애인운동의 대중투쟁을 만들어 가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계기를 잡은 거지요(박태석, 2008. 08. 24).

당시 활동가들은 지역사회의 장애인을 사회로 끌어내기 위한 매개로 ‘교육’이 가장 적절하고, 대중을 교육하고 조직하기 위해서는 ‘야학’이 필요했으며, 이것은 교육받지 못한 장애인들의 교육 욕구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양성된 활동가를 장애인운동 대중 투쟁에 투입할 수 있다는데 모두의 생각을 모을 수 있었다. 더불어 장애인 야학의 교육과정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설계에 착수하게 된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것이 야학을 할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이들은 어렵게 정립회관 2층 탁구장을 빌릴 수 있었고, 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은 탁구장에 커튼을 쳐서 2개 공간으로 분리하여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다. 비록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야간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제한점이 있었지만, 정립전자 노동자들의 이동과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당시로서는 가장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노들’이라는 이름은 당시 실무주체로 함께 했던 창립멤버 교사회의에서 제안된 것이다. 장애인 야학 발행지 ‘노들바람’에는 그 뜻과 소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노들바람의 ‘노들’은 노란들판의 준말입니다. 농부의 노동이 녹아난 들판에 넘실대는 결실들을 뜻하는 말로 노들인 모두 대지를 일구는 농부라 생각합니다. 시퍼런 ‘경쟁’의 도구로 차별과 억압의 들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과 연대로’ ‘인간 존엄성과 평등’이 넘쳐나는 노란 들판을, 그 대안적 세계를 꿈꾸는 농부들 말입니다(노들장애인야학(2008). 노들바람 제75호, p.3).

1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노들장애인야학은 1993년 8월 8일 정립회관 본관 2층 탁구장에 초·중등 2개 반으로 개교하게 되었다. 교장은 장청회장이자 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던 손복목이 노들장애인야학의 초대 교장으로 파견되었다. 설립 당시의 상황을 박태석은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그렇게 해서 93년도 8월 8일에 장청의 조직국 산하, 하나의 부서 형태로 개교했어요. 구성원들은 시설비리(운동) 같이하고 장애인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대학생들, 그리고 정립전자에서 만났던 사람들 아주 소수 이렇게 해서 구성원이 되었지요. 총 20명이 넘지는 않아요. (중략) 처음에 시작할 때는 초등, 중등 두 개 반. 자체적인 교무실은커녕 공부할 공간도 없었지요. 그래서 체육관 2층 탁구장을 빌려서 낮에는 탁구장으로, 밤에는 수업하는 공간으로 사용했어요. 수업을 기다리는 교사는

교무실이 아니라 탁구장 밖 복도에서 기다렸고, 탁구장은 칸막이를 치고 두 반으로 운영이 되었죠. (중략) 가르치는 소리, 떠드는 소리, 잠자는 소리를 스테레오로 그대로 들으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성적과는 관계없이(박태석, 2009. 03. 03).

장애인 야학에 참여하여 봉사할 교사를 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활동가들의 가까운 관계망들을 이용해 겨우 섭외할 수 있었고 이미 들어왔던 교사는 후임 교사를 데리고 오는 식으로 겨우 야학을 운영할 수 있었다. 더구나 교사 수가 얼마 되지 않고 업무량 자체가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들어와서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야학은 단순히 수업을 하는 교사를 제외하고는 핵심적인 교사 서너 명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장애인 야학의 초창기인 5~6년까지 교육대상자는 주로 정립전자 노동자들이었다. 초기에 정립전자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야학을 만들었고 정립전자라는 안정적인 공급처가 있었지만 실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학생은 소수에 불과했다고 한다. 배우고자하는 욕구는 컸지만, 일마치고 밤늦게 공부하는 자체를 힘들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들장애인야학의 목적중 하나가 교육을 매개로 지역사회의 장애인을 끌어내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생 모집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

당시 전장협 산하에는 여러 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굵직한 4개의 사업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각 지역의 '공부방', 시설장애인을 위한 '자원 활동 동아리', 빈민장애인을 위한 '노점상 투쟁', 대중을 교육하고 조직하기 위한 '야학' 운영이 그것이다. 그러나 왕성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적, 재정적 어려움을 쉽게 극복하지 못하던 전장협은 97년부터 한국 DPI와의 통합을 논의하게 되면서 갈등이 일어난다.

통합과정에서 전장협이 대중들을 조직하기 위해서 해왔던 사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는 거예요. 장자추(장애인자립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도 장애인 문제를 노점의 문제로 풀 수 없다고 그러면서 정리하고. 공부방은 돈 없다고 철수해 버리고. 자원봉사 활동가는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없애버리고... 노들야학 같은 경우도 대중을 조직하기 위한 것들이었는데 교육서비스공간으로만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교사 대표도 선출하고, 학생회장도 선출하고, 교장도 임명제 이기는 했지만, 자체적인 추천권도 갖고 있었고, 그렇게 아래로부터의 민주적인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임명제로 바꾸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가르치기만 열심히 해라' 이런 태도였죠(박태석, 2008. 08. 24).

1999년, 서로 생각하는 운동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결국 노들은 협회와 영원한 결별을 택하고 독립하기에 이른다.

### 3) 질라라비장애인야학

질라라비장애인야학은 2000년 3월 11일 대구시 동구 효목1동 87-7번지에 장애인지역공동체와 함께 개교하였다. 질라라비장애인야학이 개교하기까지의 과정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행복 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 ‘행복’)’에 이르게 된다. 대구에 소재한 행복 어린이집은 1992년 개원한 장애아동 교육시설로, 당시 이곳에서는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활동과 함께 ‘장애아동 부모회’의 운영으로 부모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99년 행복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보다 강력한 사회운동의 역할을 수행할 새로운 모습의 단체가 필요함을 절감하게 되고,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 ‘장애인지역공동체’의 설립을 결의하게 된다. 장애인지역공동체의 설립을 거론하면서 제기된 야학 설립의 동기를 당시 행복 어린이집 교사였던 정지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도 늘 생각했어요. 이걸 장애인 당사자가 해야 되는 거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앞에 있을 수는 없다. 명분도 부족하고. 그러면 집에 있는 장애인들을 밖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운동할 단체도 만들어야하고, 운동할 단체 만들었으면 이 사람들이(장애인 당사자) 운동 전면에 배치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교육도 시켜야 하고. 단체 만들고 야학 만들고 그러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중략) 그때 (행복 어린이집에서) 자원봉사하던 권지혁 선생님이랑 이영현 선생님이 되게 열심히 했어요. 우리 생각이 이렇다. 우리가 장애인지역공동체 만들 거니까 선생님들은 야학 만들어볼래? 같이 한번 해보자. 좋다 하네요(정지원, 2007. 11. 15).

‘장애인지역공동체’의 설립을 준비 중이던 활동가들은 당시 행복 어린이집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이영현과 권지혁을 영입하면서 야학 설립의 꿈을 구체화하게 되고, 두 단체의 설립은 자연스럽게 같은 시기에 추진된다. 이는 ‘장애인지역공동체’라는 장애인운동단체의 활동 중심에 장애인 당사자가 자리하기를 원했던 이들의 이념적 필요와 잘 맞는 일이었다.

야학 설립의 꿈이 구체화되면서 야학의 이름도 정해졌다. ‘질라라비’라는 장애인 야학의 명칭은 초대 야학 교사이자 1대 교무를 맡았던 권지혁 교사의 제안으로 부터 결정된 것이다. ‘질라라비’란 ‘닭의 시조’를 지칭하는 순수 우리말로, 민중운동가 백기완 선생의 글 ‘질라라비 훨훨’에서 따온 것이다. 지금의 닭들은 사육되고 퇴화되어 날지 못하지만, 태고적 닭의 야생성은 억세고 강인하여,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녔다고 한다. 지금은 사회의 차별과 편견 때문에 억눌린 삶을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차별의 고리를 끊고 넓디넓은 세상으로 날아오를 것이라는 의지와 소망을 담은 이름이 바로 ‘질라라비’인 것이다. 권교사가 제안을 하고 장애인의 처지와 소망

이 고루 담긴 ‘질라라비’가 야학의 이름으로 적합하다는 교사, 활동가의 만장일치로, 질라라비장애인야학 공식 명칭이 정해진다.

이후 학교를 만들고 운영하기 위한 기본 학칙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이어졌다. 학교운영에 대한 경험이 전무 하였던 터라 권지혁과 이영현은 우선 서울 ‘노들장애인야학’을 방문하였다. 그곳에서 야학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고, 자료를 지원받아 그 틀에 근거하여 ‘질라라비장애인야학 교칙’을 제정하게 된다. 질라라비장애인야학 교칙 제2조에서는 ‘제도교육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에게 최소나마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립 목적을 밝히고, ‘세상 모든 차별 철폐를 지향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게 된다. 이것은 장애인지역공동체의 설립이념과도 그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00년 1월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교사와 학생모집이 시작되었고, 구성원 모집은 개교(2000년 3월 11일)가 되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권·이 교사는 당시 직장생활을 하였던 관계로 퇴근 후 행복 어린이집에서 만나 구성원 모집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운 후 발로 뛰는 작업을 하게 된다. 우선 교사와 학생모집 포스터와 안내장을 제작하였다. 권·이 교사는 야학 교사와 학생 모집 포스터를 야간과 주말을 이용하여 대구 소재 각 대학과 구역별 장애인복지관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부착하였다. 그리고 대구지역 장애인신문 구독자들에게 일일이 신문과 함께 모집 공고문을 발송하였고, 앞앞이 전화를 걸어 야학을 소개하고 함께 공부할 것을 권유하게 된다.

교사는 대부분 벽보를 통하여 모집되었다. 벽보를 보고 전화 연락이 오면 사전 협의를 통하여 개교 전까지 학생모집에 합류하기도 하였다. 벽보와 입소문을 통하여 야학에 다니고자 희망하는 학생에게서 전화 연락이 오기 시작하였다. 가장 먼저 문제를 삼는 것은 과연 학교를 오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제도교육에 합류할 수 없을 만큼 이동이 제한된 사람들이었으므로 이동에 관한 문제가 가장 관건이 되었다. 야학 교사들은 학교에 다닐 뜻만 있다면 등·하교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하고, 연락처를 확보한 후 우선 학생 집으로 가정방문부터 하였다. 배움에 대한 의지를 굳건히 하고, 교육의 기초자료를 파악하며, 무엇보다도 가정과 학교와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정방문은 꼭 필요한 작업이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방문과 적지 않은 시간의 대화, 믿음이 형성되고, 학생들이 차곡차곡 모이는 만큼 교사들도 신념으로 모이고 뭉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교사 12명, 학생 16명이 확보되었고, 2000년 3월 11일 ‘장애인지역공동체’와 함께 ‘질라라비장애인야학’은 마침내 개교를 맞게 된다(김용욱·김병하, 2007).

## 2. 장애인 야학의 발전 과정

대개 그렇듯이, 제도권의 지원을 받지 못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야학에게 열악한 건물사정과 경제적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었다. 두 야학은 모두 계단을 통해 올라가는 건물에 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휠체어를 타는 중증 장애인들은 스스로 건물 내부에 진입할 수 없었다. 그때의 상황을 박정원과 박태석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택시 타면 2500원이었는데, 3000원 주면 (미안해서) 500원 못 받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가 학교 오면 학교가 2층에 있었거든요. 대로변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비 오면 비 맞고 기다리고...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휠체어 올려주거나 업고 올라갔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업고 올라가지 않으면 학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몸무게도 많이 나가서 선생님들 힘들었지요(박정원, 2007. 08. 09).

그때는 핸드폰이 있었나요. 뭐가 있었나요. (1층에서) 부른다고 들리거나 하나요. 사람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누구 하나 오면 붙잡고 들고 올라가고. 힘들었죠(박태석, 2008. 08. 24).

박정원과 박태석은 힘들게 학교를 와서도 문 앞에서 관계자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도움을 받아 학교로 들어가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고 당시의 힘든 상황을 전한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두 야학 모두 처음부터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나마 질라라비장애인야학의 경우에는 장애인지역공동체의 부설기관으로 출발했고, 행복 어린이집의 교실 공간을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건물 사용과 차량이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기본적인 교육기자재는 비공식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립회관의 탁구장을 교육공간으로 사용하기로 한 노들장애인야학은 기본적인 교육시설이나 교재조차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야만 했다.

하지만 정작 더 힘들었던 것은 학생들의 이동이었다. 어렵게 교사들이 야학으로 배움의 길을 안내했지만 대다수 장애인들은 처음 먹었던 마음과는 달리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을 무척 두려워했다. 그들이 야학에 스스로 등교한다는 것은 가정이나 타인의 지원 또는 배려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때마침 행복 어린이집에서 학생들의 등하교에 사용하던 봉고차가 있어서 야간에는 야학에서 빌려 쓸 수 있었다. 봉고차를 운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직접 운전대를 잡기도 했고, 운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행하기도 하였다. 봉고차에는 사람과 휠체어가 함께 들어가야 했으므로 봉고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서 수시로 교사들의 자가용을 이용하기도 했다. 더구나 학생들의 집은 시내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집까지 학생과 휠체어를 옮겨야 했으므로 활동을 보조할 교사들도 많이 필요했다. 그때의 어려

왔던 상황은 다음의 말에 잘 드러나 있다.

하교 시간이 되면 자가용이랑 봉고차가 대기해요. 그리고 범물동쪽 효목동쪽 그렇게 코스를 나눠서 순서대로 앞히는 거예요. 맨 나중에 내리는 사람은 제일 안쪽으로. 휠체어 뒤에 다 싣고. 수호 같은 경우는 차량봉사하던 여자가 자가용 타고 데려다 주면 목발 짚고 가고. 그렇게 짹 찢어져서 가는 거예요. (중략) (학생집에) 가보면 아파트인데도 있거든요. 학생 업고 올라가고 또 휠체어 가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선생님이 너무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힘을 써야 되니까요. 여자 선생님들도 휠체어 들고 막 뛰고 그랬어요. 다 집에 데려다 주고 다시 봉고차 갖다 놓으려고 오면 11시 넘었죠(이영현, 2007. 08. 15).

이렇게 개인적인 일상을 접어두고 자신의 시간을 투여해가며 장애인들을 학교에서 집으로, 집에서 학교로 이동시켜야 하는 일은 가르치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이기도 했다. 이러한 어려움은 교사수급에도 영향을 미쳤다. 경우에 따라 야학 교사를 지명할 때에는 대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자투리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자 수업만 해결요량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장애인 야학은 일반야학과는 달리 수업 외에도 등하교, 활동보조, 식사 등을 준비해야만 한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이 막상 야학에 들어와 보면 교사의 역할이 수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금세 깨닫게 된다. 처음부터 열정을 가지고 야학에 있었던 교사들은 단순한 봉사활동의 개념으로 교사를 하려는 점을 이해하기 힘들어한다.

작은 시간이라도 보태어 수업만 하고 싶어 하는 교사 지원자들의 마음과 이동과 수업을 모두 책임져야만 야학의 교사로 일할 수 있다는 기존 야학 교사들의 입장 차는 때때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은 야학 초창기에 종종 불거졌던 문제로, 여기에는 두 가지 입장 차가 존재한다. 첫째는 장애인 야학에 대한 애착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야학 설립에 관여했던 초창기 교사들의 야학에 대한 애착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비하여 남다르게 강해 보였다. 즉, 초창기의 교사들은 야학운영의 짐을 나누기 위해 교사라면 야학이 열리는 날이면 수업이 있든 없든 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로는 교사의 책무성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장애인 야학을 일종의 봉사라 여기느냐 아니면 내가 이 사회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가라는 가치판단의 문제인데, 초창기 교사들의 대부분은 교사로서의 일을 사회 정의의 측면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문제로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야학의 교사가 된다는 것은 강한 의무감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야학 교사의 위상에 흠집을 낸다고 생각했다. 반면, 좋은 뜻으로 봉사한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은 수업만 해주어도 장애인 야학에 큰 도움이 된다고 여기고 나름 보람을 갖는 것에 자족하고 있었다. 이것이 봉사활동의 하나로 야학의 교사를 하고자 하는 신입 교사들이 기존 교사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였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야학교사의 부족 때문에 표면적으로 분출되지 않고 서로간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푸념으로 마무리된다.

이렇게 인적으로 물적으로 늘 어렵고도 힘든 상황은 때로는 야학의 존폐마저 거론될 만큼 위태로웠다. 하지만 교사들의 야학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책무성 그리고 학생들의 불타는 향학열은 힘든 상황에서도 야학을 교육공동체, 생활공동체로서 성장시켜 가게 된다.

그러던 중 장애인 야학이 장애인 운동의 구심점으로 그 이름을 드러낸 것은 이동권 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였다. 2001년 1월 서울 오이도 역에서 장애인이 리프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때 노들장애인야학의 대표 박태석은 즉시 범 연대 조직 ‘오이도역 장애인 수직리프트 추락참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동권 연대’를 조직하여 운동에 들어가게 된다. 이 과정에 노들장애인야학의 교사와 학생이 깊숙이 연관되어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는 일이다. 장애인의 이동권 운동은 전국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과급이 되었고, 질라라비장애인야학도 이에 호응을 맞추어 활동을 추진해 나간다. 이러한 활동은 주로 야학의 교육과정 속에서 함께 진행이 되었다.

야학에서는 학교 안에서 진행하는 교과교육 외에도 ‘문화체험’을 실시하는데, 이것은 ‘학습’과 ‘운동’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즉 학습과 운동이 함께 맞물려 다양한 형식의 수업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며 이동권 운동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것이다. 문화체험은 버스타기 운동, 한국시리즈 야구 경기 관람, 영화 보기 체험 등 다양한 행사와 함께 이루어지고, 이러한 파격적인 행사는 학생, 교사, 그리고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을 조금씩, 서서히, 구체적으로, 그러나 힘 있게 바꾸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때마침 학생들의 이동수단이 수동휠체어에서 전동휠체어로 대폭 바뀌게 된다. 수동에서 전동으로의 교체는 문화체험활동을 더욱 빠르고 손쉽게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때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명 ‘허경훈 수능사건’으로 불리는 중증장애인의 수능시험 환경을 개선에 대한 운동이다. 때는 2003년 11월 5일, 대구 경북대 사범대부속고등학교에서 치러진 수능시험 도중에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와 장애인에게 불리한 제도상의 문제점 등을 항의하며 허경훈 씨가 자진 퇴장하는 일이 일어났다. 허씨의 꿈은 장애인들이 즐기는 “보치아” 경기 선수를 길러 내는 교육자가 되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는 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에서 보치아 경기 4위, 97년 세계보치아 선수권대회에서는 개인전 은메달을 따는 등 보치아 경기에 대한 경력을 쌓으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는 질라라비장애인야학에서 2년여의 기간 동안 대학 입시를 준비해 오다가 용인대 특수체육과에 지원하기 위해 수능시험에 응시하였다.

하지만 시험을 치르는 동안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도저히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고사장이 마련되어 있는 학교 건물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없었어요. 120m나 떨어진 옆 건물에는 있었지만 쉬는 시간 달랑 20분인데 그 짧은 시간 동안 휠체어를 밀고 다녀올 수는 없어요. 10시간 넘게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하나 없다면 국가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권리까지 주지 않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 말고도 또 있어요. 고사장에는 휠체어가 들어가지 않는 일반 책상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중증 장애인들) 보니까 (수능) 치기 전날 트럭에 (책상이랑 용변기 등) 잔뜩 실어 오더라고요. 돈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겠지만 나같은(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시험 치지 말라는 거나 다름없죠(허경훈, 2007. 09. 05).

결국, 그는 2교시 시험을 끝으로 중도 퇴장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개인이 필요한 물건은) 장애인 본인이 직접 가져와야 한다. 지난 94년부터 사대 부고에서 장애학생들이 시험을 치렀으나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답변을 했지만, 장애인관련 시민단체의 생각은 달랐다. 원칙적으로 수능시험에 대한 장애인 배려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구장애인연맹은 장애인편의시설과 시험제도가 개선되도록 국가인권위에 진정했고, 국가인권위의 조정권고를 대구시교육감과 수능시험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받아들여 조정서를 작성하기에 이른다.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합의 내용을 각시도교육청에 배포하게 되고 ‘2005년 전국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에 모두 반영하게 되어 결국 이듬해부터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용 화장실, 휠체어 장애인용 책상 등이 갖추어진 상황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전국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과 변화를 겪으면서 학생들은 1인 시위, 서명운동, 정책제안 등으로 그 활동의 폭을 넓혀 가고, 야학의 교육과정은 대외운동 혹은 연대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제도의 개선, 법률의 제·개정, 생활환경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깊이 관여하게 된다. 이동권 운동으로부터 시작한 장애인 야학 주도의 장애인 운동은 장애인차별 금지 운동, 교육권 확보 운동,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화 운동, 탈 시설 운동 등으로 확대되면서 법률의 제·개정을 이끌어내며 발전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운동성향은 장애인 야학을 여타의 야학과 구분 짓는 가장 큰 특징이 되기도 하고, 또 야학을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운동단체로 바라보게 만드는 구실을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야학의 교육과정이 ‘학습’과 ‘운동’이라는 밑그림으로 정착되고 장애인 운동의 성과가 두드러질 즈음, 2008년 두 야학은 기존의 야학공간에서 물러나게 될 위기를 맞게 된다. 질라라비장애인야학은 장애인지역공동체의 설립과 함께 개교가 추진되었다. 따라서 초창기 야학과 장애인지역공동체는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평



등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생각을 공유하며 공간과 물자를 함께 쓰는 구조였는데, 이후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장애인지역공동체의 창립 멤버는 대부분 현재 장애인지역공동체의 운동성과는 색깔이 다른 단체로 옮겨갔고, 장애인지역공동체는 야학을 졸업한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는 새로운 사람들로 구성되었던 것이다. 또 초창기에 함께 사용하던 공간(행복 어린이집)이 사회복지 법인이 되면서 더 이상 결방살이를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다행히 2007년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진행하면서 질라라비장애인야학의 독립적인 공간과 차량지원에 대한 요구가 대구시에 수용되어 2008년 5월 23일 대구시 검사동에 장애인지역공동체와 질라라비장애인야학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서울 노들장애인야학의 경우는 질라라비와는 다르게 일방적으로 내몰렸다는 표현이 훨씬 더 어울릴 것이다. 노들은 1993년 개교해서 2007년까지 14년을 한국소아마비협회가 운영하는 서울시 구의동 정립회관 내에서 교육받지 못한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2007년 정립회관측은 추가로 발생하는 냉난방비와 인건비 등의 부족을 이유로 2007년 12월 31일까지 교실공간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다. 표면적인 이유는 추가비용의 부담 등이었지만 속내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내부적으로 이야기한다. 2004년부터 다시 불거진 정립회관의 내부 체계에 노들장애인야학이 조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퇴거 요청 이후 노들장애인야학은 교육인적자원부,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등에 공간 협조를 구했지만 모두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다. 결국 37명의 장애인 학생과 20명의 교사는 2007년의 마지막 날 정립회관을 나와 2008년 1월 2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결한 수업을 시작하였다. 노들의 천막야학은 '길거리에 나왔어도 수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는 현수막을 내걸고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79일이나 계속되었다. 노들장애인야학은 천막야학이 진행되는 동안 후원자들로부터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과 정부 보조금을 토대로 3월 21일 천막야학 해단식을 하고 서울 동승동 유리빌딩 2층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2008년 3월과 5월, 새로운 공간에 안착하게 된 두 야학은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 Ⅲ. 장애인 야학의 운영상의 주요 쟁점

연구자는 2002년부터 장애인 야학과 관계를 맺어왔다. 당시 교사와 야학관계자

들에게 야학에 대한 전망을 질문할 때면 늘 장애인들도 제도 안에서 누구나 공평하게 교육을 받아 중국에는 장애인 야학이 이 땅에서 없어지는 일이라는 소망을 들어왔다. 또는 야학이 없어져도 될 만큼 장애인도 교육을 받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것이라 말하곤 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바램과는 달리 장애인 야학이 없어지거나 그 수가 줄지는 않았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인 야학이 설립된 현황을 정리하여 보면 1982년 ~ 2000년까지는 8개, 2001년 ~ 2002년까지는 1개, 2002년 ~ 2004년까지는 3개, 2005년 ~ 2006년까지는 5개, 2007년 ~ 2009년까지는 13개로, 1982년 인천의 작은자야학을 시작으로 2000년 까지는 전국적으로 여덟 개에 불과했던 장애인 야학이 오히려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장애인 야학이 급속도로 개교한 것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장애인의 문제가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차별금지운동 등 일련의 장애인 권리 운동으로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부터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장애인 야학이 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해답은 다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여전히 교육받지 못한 장애인들이 많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교육 정도는 초등학교 33%, 고등학교 24.4%, 중학교 15.9%, 무학 16.5%, 대학 이상 10.2%의 순으로 나타나 무학을 포함한 중학교 이하의 학력이 65.4%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은 장애인은 16.1%, 중학교에 다니지 않은 장애인은 48.3%,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은 장애인은 64.2%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교육 정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알린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이렇게 단순한 통계만 보더라도 적절한 교육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이 많고, 해가 갈수록 교육받지 못한 장애인의 수는 누적되기 때문에 그 수는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장애성인의 교육에 대해 국가 차원의 현실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여전히 교육받지 못한 장애성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교육을 각성하고 실행하고 있는 장애인 야학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이동권 운동과 활동보조인 제도의 정착으로 집밖으로 나오게 된 중증 장애인들이 많아졌고, 이들은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위하여 야학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이동권 운동이 일어나던 2001년 이후부터 장애인의 교육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되고, 이 중 교육받지 못한 장애성인 교육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었다. 같은 시기에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이 확대되면서 자립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문해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 일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 야학을 개설하기 시작하면서 장애인 야학이 최근 5년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동을 하면서, 자립생활을 하면서 최소한 한글은 알아야 했기 때문에 배움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이들을 교육시켜줄 교육기관은 어디에도 없었다. 바로 이러한

장애성인들의 교육적인 요구를 수용한 곳이 장애인 야학이었고, 장애인 야학의 문을 두드리는 장애성인이 많아질수록 야학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운동적 성과로서 야학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서, 앞서 설명한 배우고자 하는 장애인들이 늘어난 것과는 좀 다른 해석을 요구한다. 즉, 장애인 운동의 성과로서 야학의 물질 기반이 확대되었고, 그러한 기반 위에서 야학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운동적 성과’ 측면에서 살펴보면, 쟁점의 서두에서 언급하였던 ‘제도교육이 확대되고 완전한 보장이 이루어진다면 장애인 야학이 사라져도 좋다’라는 문제에 또 다른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을 두고 박태석은 “(제도)교육에서 다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장애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야학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한다. 즉, 장애성인의 교육에 관한 것이 제도 안에서 모두 해결이 된다 해도 여전히 ‘장애’라는 문제는 남게 되고, 장애에 관한 문제 해결 방식과 입장은 다양하게 견지될 수도 있으므로 야학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신생야학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거점으로 조직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장애인 운동의 목적의식의 한 분야로서 야학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뒷받침해 준다.

이렇게 장애인 야학과 그곳을 찾는 학생 수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이것은 야학 운영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상황은 장애인 야학의 교육문제가 단지 민간차원에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봉사와 헌신을 한다고 감당할 수 있는 규모는 이미 넘어섰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었다. 따라서 이들의 교육을 헌법 및 교육기본법 등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장애인 야학의 운영난 문제 해결 및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 전국 12개 장애인 야학을 시작으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가 결성이 되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함께 장애인 야학의 운영난 해소에 필요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마련 촉구 및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고, 지난 2007년 5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장애인 야학의 법제화 가능성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한편, 동법 시행령에서는 이와 같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자격 요건을 명시하였고, 「평생교육법」의 근거에 준용하여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이제 장애인 야학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장애인 야학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되려고 하는가?

지금까지는 교육받지 못한 장애성인들의 교육을 개별적인 노력의 형태로 채워나갔다. 하지만, 이것은 자원봉사와 같은 임시방편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므로 교육의 내용이나 실제에 있어서 단단하지 못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장애성인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교육제도의 허점 때문이고, 그것은 국가의

책임이므로 교육에 대한 권리를 지금이라도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교육 받지 못한 장애성인의 교육 문제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들은 이미 장애인 야학이 지금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상당 부분 수행하고 진행시켜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 야학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법에 명시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법적으로 구체화하는데 절차상의 확정된 것이 없다는 이유로 법제화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조항을 포함시켜 장애인 야학의 제도화 및 장애성인의 학습권을 보장받으려 했던 장애인 야학 측의 취지와 상반되는 조치이다.

야학 측의 요구에 대하여 교육청은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안은 이미 제도적으로 갖추어져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교 내에 성인학급을 운영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안은 장애인 야학을 아예 학교법인으로 만들어 법적인 고민 없이 물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첫 번째 안에 대해서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2008년 3월부터 지체부자유 특수학교인 서울해님학교에 장애성인을 위한 초·중·고 교육과정 등 3개 야간부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하지 않아도 졸업만 하면 학력이 인정되고 안정적인 지원 속에서 장애성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처럼 제도 안의 교육기관 내에서 성인반을 운영할 경우에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교육기간의 문제이고 둘째는 교육 내용의 문제이다. 실제 야학에서는 제도의 교육에서 요구하는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거나 혹은 이미 다 채웠더라도 본인의 요구에 따라서 유연하게 재학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장애성인의 현실적인 요구를 수용하여 보다 융통성 있는 수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6년 혹은 3년이라는 제도에서 요구하는 수학 기간과 틀에 박힌 과목은 이미 성인이 된 장애인에게는 부담스럽거나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야학의 유연한 교육기간과 자율적인 교육 내용이 학생들에게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미 그러한 것을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실천해 온 장애인 야학이 물적인 지원을 받아 보다 안정적인 구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 장애인 야학 측의 설명이다.

두 번째 안은 장애인 야학을 아예 학교법인으로 만들어 법적인 고민 없이 물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야학은 근본적으로 반대의 뜻을 표한다.

교육청 쪽에서 근거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해주기 편한데 왜 그러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노들장애인야학이 아니라 노들 장애인 학교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들은 지원을 해줄 때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해주어도 되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할 거라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내에 장애성인 교육기관 근거조항을 만들지도 않았을 거예요(박태석, 2009. 04. 29).

위의 발언은 제도에서 바라보는 학교와 야학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른 방향의 문제라는 것임을 시사한다. 완전한 제도교육 속에서 장애성인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편입이 되는 것은 어쩌면 편한 길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한편으로는 야학이 가지는 고유한 교육목적이나 운동성을 포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요구하는 제도가 보장하는 범위란 어떤 것일까? 박태석은 그것을 ‘경계선’ 이라고 이야기한다.

학교 건물비를 주나요, 인건비를 주나요. 그 정도를 받기까지 우리가 활동을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몇몇은 학교법인으로 가서 그렇게 하기를 원할지도 모르지만 (학교법인으로)안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비 정도만 지원받으려는 거지요. 우리는 제도에서 인정받는 수준의 문제에서는 ‘경계선’상에 있다고 봐요. 인건비나 이런 거는 지원을 못 받지만, 교육프로그램비나 이런 것들은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지요(박태석, 2009. 04. 29).

이렇게 경계선상에서 야학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그동안 야학이 지향했던 저항정신을 고스란히 살리면서도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것은 제도의 뒷받침을 적절히 활용하면서도 야학이 추구했던 고유한 정신만은 그대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인 야학 측의 시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입장도 있다. 작은자야학 교사 김지호는 제1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세미나에서 야학의 존재 이유를 토론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장애인 야학의 제도화라고 말하면서 ‘장애인 야학이 교육권을 박탈당한 장애성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나, 장애인들의 교육권을 회복시켜주는 유일한 기관이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자칫 야학이 장애성인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성인을 ‘야학으로 가세요’라고 인도하여 자칫 제도교육에 면죄부를 부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야학의 그러한 모습은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을 각성시키고 제도적인 해결을 강구하도록 했던 야학 고유의 모습을 흐리게 하여 자칫 들뜬 존재하는 야학(野學)이라는 의미를 희석시킬 수 있으며, 이는 장애인 운동의 대중적 거점으로서 비판과 저항의 역할을 다 한다는 의미에서도 한걸음 멀어질 수 있다는 조심스런 지적이다.

제도와외의 관계 맺기에 관한 사항은 야학 내부에서도 침예한 견해 차이를 보이는 뜨거운 문제로서 현재 그것은 계속 논의 진행 중이다.

#### IV. 결 론

이상에서 보듯 교육받지 못한 장애성인을 끌어안은 곳은 제도의 변듯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이 땅에서 힘들게 명맥을 이어가던 장애인 야학이었다.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하는 장애인야학은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또는 통합의 형태로 이루어져 온 제도 안의 장애인 교육과는 다음의 세 가지 면에서 매우 다른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장애인 야학에서는 기존의 특수교육에서 강조해 온 잔존능력의 최대 향상을 통한 장애극복에 교육의 목적을 상정하기보다는 사회참여를 통한 장애인 역량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둘째, 특수교사 양성과정을 밟은 유자격 교사가 아닌 장애인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지식인과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교육활동이 수행된다. 셋째,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제도의 특수교육이 실시해온 정규교과와 직업교육, 여가프로그램 등과 같이 유사한 측면도 많지만, 보다 성인 장애인의 사회·교육적인 요구를 수용하여 융통성 있고 탄력적인 형태로 운영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 야학의 존재는 특수교육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첫째,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제도 교육의 모순을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구실을 한다. 제도의 교육이 장애성인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했다면, 어쩌면 이들은 구태여 야학을 찾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학교나 특수학교를 졸업하고도, 또는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장애성인이 다시 야학을 찾는 이유는 학력취득 이상의 의미가 야학에 존재하고 있고, 그것은 장애성인들에게 매우 소중한 가치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장애인 운동 활동가 김지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사실 장애인야학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 대한 비판이고 저항이다. 장애인야학 존재 자체가 공교육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다. 야학은 공교육 시스템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야학은 국가와 사회가 다분히 의도적으로 침해했던 교육권을 회복시켜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김지호, 2008. 05. 24).

이러한 입장에서 보자면, 장애인 야학이 존재한다는 단순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특수교육의 제도적인 취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제도에서 소외된 장애성인이 그 대안으로 장애인야학을 찾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제도의 완벽한 뒷받침이 야학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것은 교육의 문제와는 다른 해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운동적 성과’에 의한 야학의 입지를 강조한다. 제도가 장애성인의 교육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하더라도, 개인과 사회의 장애 문제는 교육과는 별개의 문제로 남게 되고, 이때 야학은 저항과 비판의 담지체로서 여전히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학령기를 지난 장애성인을 위한 특수교육적인 노력이나 실천이 부족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2008년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자료(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2008, 장애인교육권확보 정책요구안 파일자료 재구성)에 따르면 실제 전국적으로 328개의 기관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접근하여 참여할 수 있는 것은 41개의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전체의 12.5%를 차지할 뿐이다. 그나마 교양수준의 단기적인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어서 장애성인의 교육적인 요구를 수용한 곳은 거의 없다시피 한 형편이다. 교육받지 못한 장애성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교육에 관한 문제를 그저 시혜적 정책에만 의지해서는 빠르게 해결할 수도 없을뿐더러 효과적이지도 못하다. 따라서 이들의 교육적 요구를 보다 근본적으로 수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장애인 야학의 객관적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특수교육적인 노력과 지원이 따라야 함을 뜻한다. 다행히도 최근 정부에서는 장애인 야학을 평생교육시설로 인정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그동안 열악한 장애인 야학의 재정과 운영에 숨통을 틔우는 것은 물론, 장애인 평생교육의 가능성을 여는 새로운 장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야학의 존재는 탈학교적인 상상력을 자극해 준다는 것이다. 앞서 기술한 장애인 야학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들은 기존의 특수교육 체제에서 보여 왔던 학교중심 교육관에서 탈피하여 치료와 교정의 교육모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배움의 장이 제도 밖에 존재할 수 있으며, 이것은 특수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교육이념을 도입하고 실천 방식을 달리 해 볼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 장애인 야학이 특수교육에 시사하는 나름의 의미를 찾고자 한 것은 야학이나 특수교육이나 모두 교육을 통해 사회 변혁을 기획하고 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또, 교육기회에 있어서의 차별을 없애고 학습자에게 주체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측면에서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얼핏 보면, 제도 안의 특수교육 기관과 장애인 야학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듯 보이지만, 교육을 사회 변혁의 도구로 파악하고 인간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볼 때, 결국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장애인 야학의 역사적인 흐름에서 볼 때, 장애인 야학이 주는 문제의식은 교육이란 반드시 학교에서만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는 학교중심 교육관에서 벗어난 새

로운 시각과 함께 실천을 위한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교육받지 못한 장애성인을 위한 특수교육적인 노력은 제도 안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지금까지 특수교육이 아닌 그 외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실천이 되었다. 이것은 장애인 야학이 교육받지 못한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실천에 노력해 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평생교육 시설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인정하도록 촉구한다. 따라서 야학의 제도교육에 대한 비판과 대안의 개념은 지금까지 학령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을 실시해 온 특수교육에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계획과 실천에 관한 도전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그 외연과 전문성을 확장시킬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매우 부각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권 교육에서조차 제대로 기회를 갖지 못하고 성인으로 자란 장애인들이 가지는 배움과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새로운 교육기관과 교육내용은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결국 장애인 야학의 역사와 실천은 현재 제도권 중심의 특수교육 외연을 확대할 필요성과 그 개혁 가능성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장애인 야학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이들의 바람과 소망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이들은 장애가 곧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 신체적인 능력이 사람을 규정하지 않는 사회, 조건 없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꾸었다. 또, 교사와 학생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자유롭게 대화하고 공동 연구자가 되며, 냉혹한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둘리지 않고 함께 어울려 사는 교육 공동체의 모습을 꿈꾸었다. 한국사회가 진정 자유민주주의적 복지국가임을 입증하고 싶다면, 이들의 소망을 정책적으로 적극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21세기가 지향하는 정의로운 복지사회의 지표이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8a). 향후 5년간 특수교육에 7조 7천억원 투입. 2008년 8월 25일 보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8b). 2008년 평생교육통계조사 결과 발표. 2008년 10월 20일자 보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9). 2009 특수교육통계.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곽정란 (2003). 한국 장애인 운동의 특수교육학적 고찰.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구대학교.
- 곽정란, 김병하 (2004). 장애담론의 정치적 이해: 장애인당사자주의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5(3), 249-263.



- 김경식, 박전애, 안상현, 윤주국, 이병환, 장홍재 (2003). **교육사회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경옥 (2008). 가난해서 못 배운 실업, 가난해서 서러운 야학. **한겨레**21, 692호, 84-88.
- 김도현 (2007). **차별에 저항하라**. 서울: 박종철 출판사.
- 김미아 (2008). 장애인야학운동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일장신대학교.
- 김민남 (2008). **좌절과 희망의 교육사**. 서울: 사람대사람.
- 김병하 (2000). 특수교육 패러다임 이동과 특수학교의 재구조화. **특수교육학연구**, 35(3), 137-162.
- 김병하 (2002). 프레이리의 「페다고지」와 「희망의 교육학」: 특수교육(학)에의 시사.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3(3), 133-141.
- 김병하 (2003). **(개정판) 특수교육의 역사와 철학**. 경북: 대구대학교 출판부.
- 김병하 (2005).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특수교육(학)적 함의. **특수교육학연구**, 40(1), 1-22.
- 김용욱 (2009). 장애인 야학의 전개와 학생·교사 문화: 두 야학 이야기. 박사학위 청구논문, 대구대학교.
- 김용욱, 김병하 (2007). 장애인 야학에 관한 문화 기술적 사례 연구: 질라라비 야학을 중심으로.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8(4), 45-69.
- 김은경 (1988). 야학운동의 진일보를 위하여. **보운-충남대학교**, 17, 237-249.
-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정책보고 2009-16). 서울: 보건복지부.
- 서인환 (2003). 장애인 유형 및 영역별 당사자주의 운동의 역사와 과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003). **전국장애인단체지도자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35-42.
- 양병찬, 이지혜, 김호석, 정찬남, 허준 (2004). **야학의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에이블뉴스 (2004). “수능시험 장애인편의 많이 달라졌다” 11월 17일자 기사.
- 이광영 (2004). 야학의 실태와 사회·교육적 기능에 관한 연구: 익산 소재 삼동 야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청구논문, 원광대학교.
- 이장원 (2009). **야학비판**. 서울: 학이시습.
- 임노문 (1992). 1920년대 야학의 민족교육. 한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동영, 정동일, 정인숙 (2001). **장애인 평생교육 협력체제 구축 방안 연구**.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 정인숙, 김현진, 김형일, 정동영, 정희섭 (2005).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 제1회 전국 장애인 야학협의회 워크샵 자료집 (2008). 서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천성호 (2009). **한국야학운동사**. 서울: 학이시습.
- 황병건 (2006). 교육소외 장애인의 수학실태 및 지원방향. 석사학위 청구논문, 명지대학교.
- Barton, L., & Oliver, M.편(윤삼호 역) (2006). **장애학: 과거·현재·미래**. 대구: 대구DPI.
- Freire, P.(성찬성 역) (1997). **페다고지**. 서울: 한마당.
- Freire, P.(교육문화연구회 역) (2000). **프레이리의 교사론**. 서울: 아침이슬.
- Freire, P.(교육문화연구회 역) (2002). **희망의 교육학**. 서울: 아침이슬.
- Shorris, E.(고병현·이병곤·임정아 역) (2006). **희망의 인문학**. 서울: 이매진.
- Freire, P. (1999). *Pedagogy of hope*. New York: The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 Freire, P. (2000). *Pedagogy of the oppressed*. New York: The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 Oliver, M. (1996). *Understanding disability, from theory to practice*. London: Macmillan.
- Oliver, M. (윤삼호 옮김) (2006). **장애학의 정치**. 대구: 대구DPI.

장애인 야학 관련 문건

- 장애인지역공동체(2002). 장애인지역공동체 통권 제6호.
- 장애인지역공동체(2002). 장애인지역공동체 통권 제7호.
- 장애인지역공동체(2002). 장애인지역공동체 통권 제8호.
- 질라라비장애인야학(2002). 날개 12월호.
- 질라라비장애인야학(2004). 날개 3월호.
- 질라라비장애인야학(2004). 날개 6월호.
- 질라라비장애인야학(2004). 날개 12월호.
- 노들장애인야학(2008). 노들바람 No.75.
- 노들장애인야학(2008). 노들바람 특집호 No.77.

야학 관련 기사 검색 사이트

- 야학백년사, 김동영 <http://cafe.daum.net/jinjuyahak>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http://cafe.daum.net/wjswkddiguq>
- 함께걸음 <http://www.cowalknews.co.kr/news/>

An Ethnographic Case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Yahaks for the Disabled:  
Focused on Two Yahaks

**Kim, Yong-Wook**

Dongsan elementary school in Nonsan

**Ha, Sang-Geun**

Principal of Inae School in Cheonan

<Abstract>

This study purposed to examine the developmental process and major issues related to operation of Yahak for the disabled and to suggest their implications for special education.

Yahak have provided education to the grass-roots over 11 decades in our country. In movements for the disabled, the slogan “Nothing about us without us” became prevailing, and Nodle Yahak and Jillalabi Yahak for the disabled were established respectively in 1993 and 2000 when activists conducted a series of progressive movements for the disabled. Disabled people were eager for learning, and the two Yahaks played a central role in Korean movements for the disabled by conducting a campaign for disabled people’s right to mobility when the Oeido station incident took place. The Yahaks offered hands-on culture programs as part of their extra curriculum to step up the change of the legal system and local community, and tried to serve as communities that could create a new life. Currently, there are about 30 Yahaks for the disabled in our country, which organized the National Association of Yahak for the Disabled to find a way out of their operating difficulties and attempt to turn into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under the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Yahaks for the disabled have posed problems to our society and institutional education and sought after possible alternatives against all odds, and they have some implications for special education. First, the existence of Yahaks is evidence of the institutional vulnerability of special education.

Second, there haven't been full-fledged efforts to provide special education to disabled adults who are past the legal school age. Third, they offer hope for the possibility of education without being restricted by place and make it possible to go beyond the boundary of school.

Today, we are living in society where the importance of lifelong education is highly emphasized. In the situation, it is an undeniable requirement to provide new programs and contents of education for meeting the desires to learn and lead a new life in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have grown into adults with few opportunities even in public education. Yahak's criticism of public education and their concept of alternative suggest challenging tasks to planning and practicing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special education, which has educated school aged people with disabilities until now, and provide important opportunities for expanding its denotation and expertise.

**Key Words**

: Yahak for the disabled, Nodle Yahak for the disabled, Jilalabi  
Yahak for the disabled, special education